

현안과 과제

■ 경제가 문화를 지배한다

- 금융위기 이후 경제 및 추석 지표의 비교와 시사점



 현대경제연구원

1. 개요)

- 분석배경: 최근 추석연휴기간의 행태 변화에 대하여 문화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함
 - 설과 더불어 민족의 大명절인 추석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지만 추석연휴기간 동안 인구 및 물자 이동과 가계 및 기업의 지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시기임
 - 이에 당시의 경제 상황이 추석연휴기간의 행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됨
 - 또한, 금융위기 이후 추석 연휴기간의 경제 및 추석 지표들을 비교하면 최근의 경기 국면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분석대상시기: 금융위기 이후인 2007~2013년의 추석 연휴기간 근방
 -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추석연휴기간은 9월이며 2009년 및 2012년은 10월초의 기간에도 위치함
 - 연휴기간은 3일이 대부분이나, 2007년, 2011년, 2013년은 각각 5일, 4일, 5일임

<2007년 이후 추석연휴의 시기와 연휴기간>

| 연도 | 2007년 | 2008년 | 2009년 | 2010년 | 2011년 | 2012년 | 2013년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연휴시기 | 9.22~26 | 9.13~15 | 10.2~4 | 9.21~23 | 9.10~13 | 9.29~10.1 | 9.18~22 |
| 연휴일수 | 5일 | 3일 | 3일 | 3일 | 4일 | 3일 | 5일 |

- 분석대상지표: 추석 연휴기간 근방의 경제통계, 추석 연휴 기간 직전의 주요 기관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함
 - 경제 지표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각 년도 추석 근방의 분기 및 월간 통계치를 사용함
 - 설문 조사 결과는 건설교통부, 국토해양부,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경영자총협회,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각 년도 조사치를 사용함

1) 본 연구보고서의 이용 통계중 각 기관의 설문조사 통계는 패널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계열적 비교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.

2. 금융위기 이후 추석 행태 변화의 특징과 원인

○ (추석연휴기간의 이동 규모) 경제 상황이 좋으면 추석 연휴 기간의 인구 이동 규모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

- 추석연휴기간 근방인 3분기 경제성장률을 연도별로 보면 성장률이 4%대를 나타낸 해의 경우 추석 인구이동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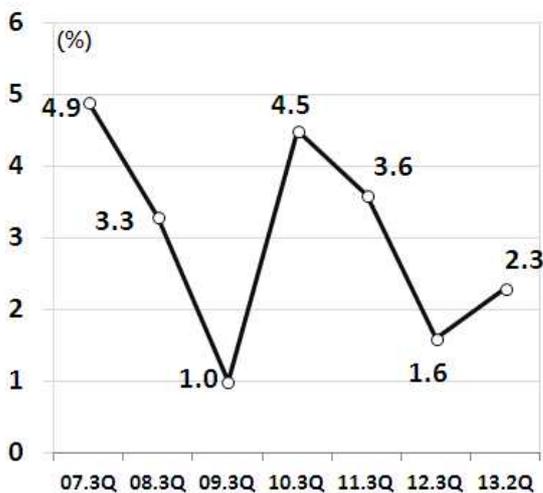
· 2007년 3분기와 2010년 3분기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4.9% 및 4.5%로 다른 연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, 동시에 2007년과 2010년의 추석연휴기간의 인구이동규모도 4,000만명대로 다른 연도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함

-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및 2009년의 경우와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을 받은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인구이동규모는 부진한 모습을 보임

· 2008년, 2009년, 2011년 이후 추석연휴기간 근방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모두 잠재성장률 수준 이하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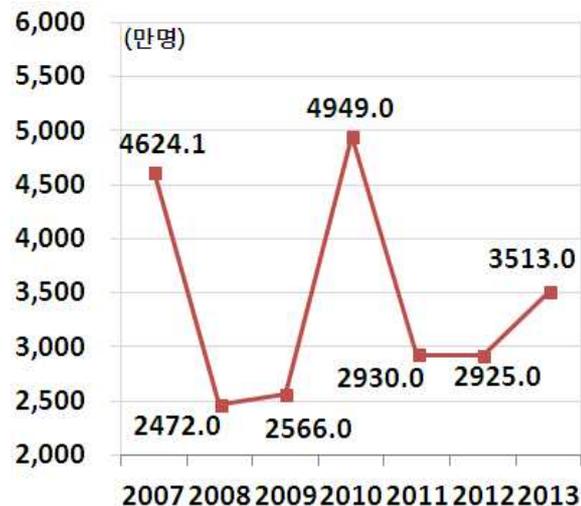
· 같은 기간 인구이동규모도 2,000만명대 수준에 불과하였으며, 올해 추석연휴기간의 이동규모는 2012년보다 높아진 3,513만명 정도로 추정됨

<3분기 경제성장률 추이>



자료: 한국은행.
주: 2013년은 2분기.

<추석연휴기간의 인구이동규모>



자료: 건설교통부, 국토해양부,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연구원.

○ (추석연휴기간의 동행인수) 교통비 부담과 추석연휴일수가 추석연휴기간의 동행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

- 추석연휴기간의 지출되는 비용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비가 추석연휴기간의 동행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

- 각 연도의 9월 국내 휘발유가격과 동행인수를 비교해 보면 2009년부터 2011년의 기간에는 같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
- 각 연도의 3분기 가계의 운송기구연료비/가처분소득 비율과 동행인수는 2009~11년까지 같이 상승하고 2011~13년까지 같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
- 2008년의 경우 휘발유가격과 가계의 운송기구연료비/가처분소득 비율이 전년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동행인수가 가장 낮았던 것은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이동 규모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판단됨

- 이외에도 추석연휴일수가 동행인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

- 2007년, 2011년, 2013년의 추석연휴일수는 각각 5일, 4일, 5일이며 나머지 연도의 연휴일수는 모두 3일임
- 2007년과 2011년이 인근연도보다 동행인수가 많은 것은 연휴일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

<3분기 가계 운송기구연료비/가처분소득 비율 및 9월 휘발유가 추이> <추석연휴기간 동행인수 규모(교통연구원 조사를 이용한 환경연 자체 계산)>



자료: 한국석유공사, 통계청.
주: '13년 연료비비율은 2Q, 휘발유가 9월기준.

자료: 위수치는 교통연구원 설문조사를 결과를 이용하여 연구원이 자체 계산함.

○ (역귀성) 추석에 대한 인식과 세태의 변화로 최근의 추석 연휴기간에서 역귀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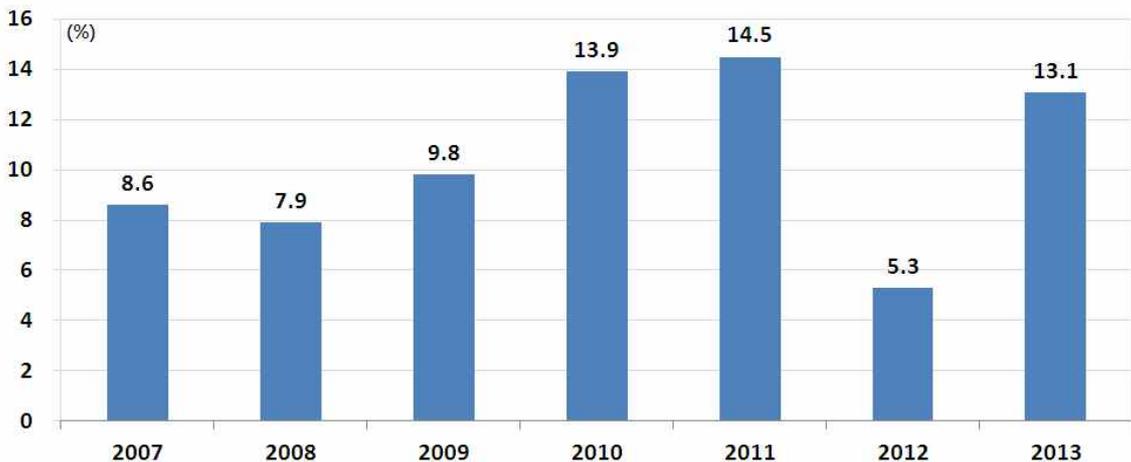
-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서 역귀성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2012년과 2013년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

- 추석 역귀성 비율은 2007년(8.6%) 및 2008년(7.9%)을 저점으로 2011년 14.5% 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함
- 한편, 2012년의 경우 5.3%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13.1%로 다시 상승함

- 금융위기 이전보다 최근의 추석 연휴기간에서 역귀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추석에 대한 인식과 세태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- 다른 추석 행태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들과는 달리 역귀성 비중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추석에 대한 세태와 인식의 변화, 핵가족화 등 사회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다만 금융위기 직후 역귀성 비율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도 일정 부분 역귀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

<추석연휴기간중 역귀성응답자수/총설문응답자수 비중
(07~08 현대경제연구원 추정, 09 이후 교통연구원)>



자료: 건설교통부, 국토해양부,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연구원. 현대경제연구원.

주: 1) 역귀성자수비율 = 역귀성응답자수 / 총설문응답자수

2) 역귀성자수비율중 2007~08년은 교통연구원 조사(안간다는 응답비율과 안간다는 응답자 중 역귀성을 응답한비중)를 이용해 자체 추정.

○ (추석연휴기간의 해외여행 비중) 추석기간중 해외여행자수의 증가 행태는 소득과 환율 등과 관련된 가계의 구매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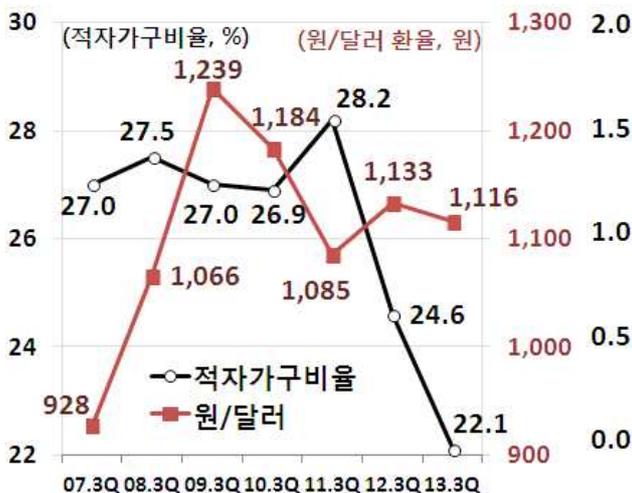
- 금융위기 이후 각 연도의 3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2011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로 해외여행자수비율은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임

- 적자가구 비율은 2011년 3분기 28.2%에서 2013년 2분기에 22.1%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임
- 해외여행자수비율(해외 귀성·여행 응답자수/귀성 또는 여행응답자수)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1%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, 2012년 이후 급증세를 보여 2012년 1.2%, 2013년 1.8%를 기록함

- 2009년 이후 원/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들면서 원화의 구매력이 높아진 점도 비슷한 기간 추석연휴기간의 해외여행비율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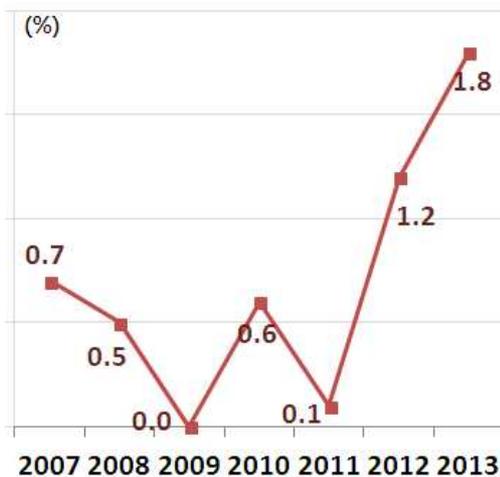
- 원/달러 환율은 2007년 3분기 평균 928원에서 2009년 3분기 1,239원까지 상승하였으나,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

<3분기 적자가구비율 및 원/달러환율 추이>



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
 주: 1) 적자가구비율은 전국 2인이상 비농가
 2) 2013년은 2분기 기준.

<추석연휴기간중 해외여행자수비율 추이>



자료: 건설교통부, 국토해양부,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연구원.
 주: 해외여행자수비율 = 해외 귀성 또는 여행 응답자수 / 귀성 또는 여행 응답자수.

3. 시사점

첫째, 경제가 추석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.

- 문화적 특성이 강한 추석 명절에서의 경제 주체들의 형태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분석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과의 동행성이 강하게 나타남
- 즉, 경제 상황이 좋으면 추석 연휴 기간의 인구 이동 규모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

둘째, 여전히 금융위기 충격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.

- 최근 주요 추석 경기 지표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올해 지표들이 작년보다는 소폭 좋아지는 모습이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
- 이는 현재의 경기 수준이 취약한 상황이며 향후에도 그 개선 정도는 미약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

셋째, 구매력이 개선되는 추세로 향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.

- 최근 추석연휴기간의 해외여행 급증은 핵가족화, 개인주의 등의 세대 변화가 주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, 분석의 결과 가계의 구매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
- 향후 경제 상황의 개선과 환율 안정이 진행될 경우 금융위기 이후 억제된 관광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
- 따라서 국내 관광지의 개발,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국내 관광경쟁력을 높여 해외여행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

<참고 문헌>

- 건설교통부(2007), “추석연휴 특별 교통대책 발표,” 보도자료(2007년 9월 13일).
- 국토교통부(2013), “귀성 9.18 오전, 귀경 9.19 오후 가장 몰릴 듯,” 보도자료(2013년 9월 10일).
- 국토해양부(2008a), “교통량 분산 등으로 추석 귀경길 소통 원활,” 보도참고자료(2008년 9월 16일).
- _____ (2008b), 「2007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- 특별연휴기간 통행특성 분석」.
- _____ (2009), “귀성길 2일 오전,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,” 보도자료(2009년 9월 24일).
- _____ (2010), “추석 연휴 4,949만명 이동…작년대비 2.9% 증가,” 보도자료(2010년 9월 10일).
- _____ (2011), “추석 연휴 2,930만 명 … 작년 대비 1.1% 증가,” 보도자료(2011년 9월 2일).
- _____ (2012), “추석 연휴기간 2,925만명 이동,” 보도자료(2012년 9월 19일).
-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(www.immigration.go.kr).
- 통계청 (<http://kostat.go.kr>).
- 한국경영자총협회, 「2007년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」 각 년도.
- 한국교통연구원(2009), 「2008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관리대책관련자료 조사」.
- _____ (2010), 「2009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관리대책관련자료 조사」.

_____ (2011), 「2010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」.

_____ (2012), 「2011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」.

_____ (2013), 「2012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」.

한국은행 (<http://www.bok.or.kr>).

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2009), “실질 추석 차례상 비용 17만 2천원선,” 보도자료(2009년 9월 25일).

_____ (2010), “재래시장 기준 추석상차림 20만 1천원선,” 보도자료(2010년 9월 14일).

_____ (2011), “추석 제수용품 어디서 구매할까?,” 보도자료(2011년 9월 6일).

_____ (2012), “추석 차례상 비용 1주 전보다 0.4% 하락,” 보도자료(2012년 9월 27일).

_____ (2013), “추석 차례상 구입비용 하락세,” 보도자료(2013년 9월 12일).

【별첨】 금융위기 이후 추석의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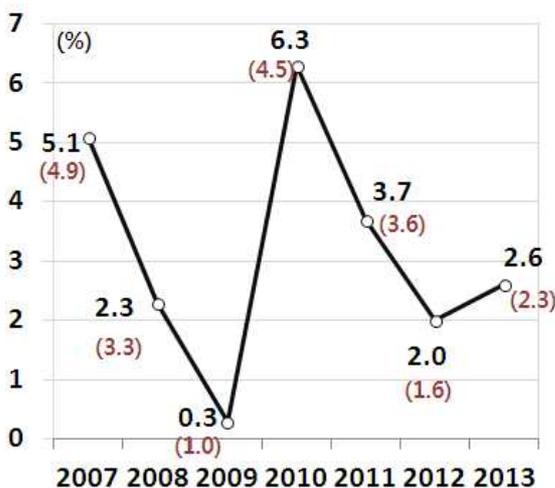
(1) 금융위기 이후 추석 근방의 경제 지표

○ (경기) 추석을 앞둔 현재 경기 상황은 작년보다는 개선된 모습이나 금융위기 직전이나 이후 경기가 반등했던 2010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

- 2013년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해인 2008년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
 - 2013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.6%(현경연 전망)로 2012년보다 소폭 높아 졌으나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수준을 크게 하회함
 - 2013년 2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년동기대비 2.3%로 2007년 3분기의 4.9%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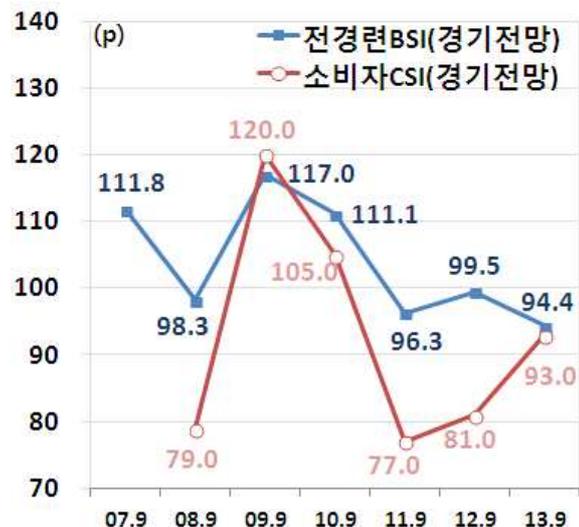
-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BSI의 침체 정도가 특히 심각한 상황
 - 2013년 현재 기업과 가계의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심리지수는 모두 기준치 100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
 - 최근 CSI는 2011년 이후로 소폭 개선되는 추세이나 2013년 9월 BSI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

<경제성장률 추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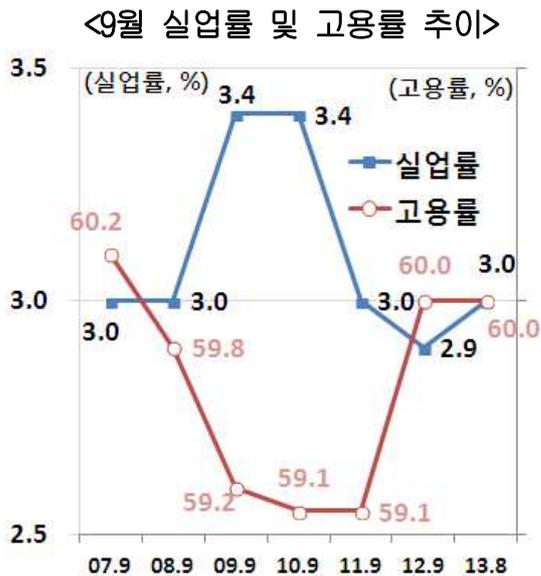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 주: 1) 2013년 연간성장률은 현경연 전망치
 2) ()안은 3/4분기, 2013년은 2/4분기.

<9월 CSI 및 BSI 추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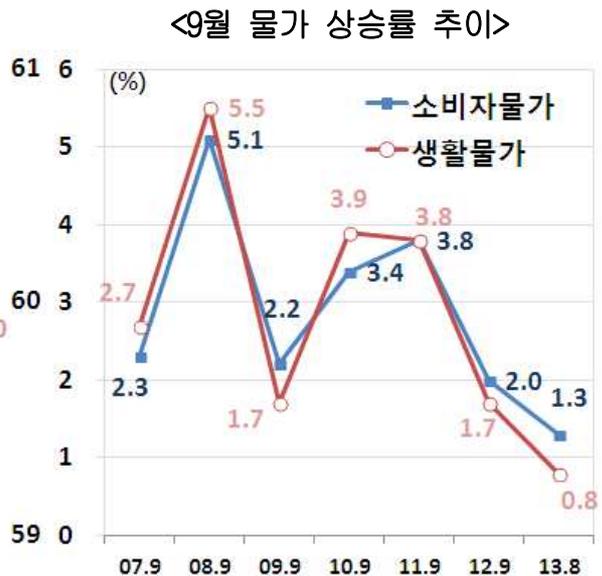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전경련.
 주: 2013년 CSI는 8월.

- (고용과 물가) 최근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이전의 모습에 근접해 있으며 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정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최근 외형상 지표로 보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이전의 모습에 근접
 - 올해 8월의 고용률은 60%로 금융위기 이후 추석 연휴기간 근방의 기간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
 - 최근 실업률도 3%로 금융위기 직전 연도인 200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정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2007년 이후 추석 연휴기간 근방인 9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올해 8월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올해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
 - 특히 가계의 체감 물가와 관련이 깊은 생활물가 상승률은 올해 8월 전년동월 대비 0.8%로 안정된 수준을 기록



자료: 통계청.
주: 2013년은 8월 기준.



자료: 통계청.
주: 전년동월대비, 2013년은 8월 기준.

(2) 금융위기 이후 추석 행태 관련 지표

○ (인구이동) 귀성하는 인구 비율과 연휴 기간 이동 인구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위기 직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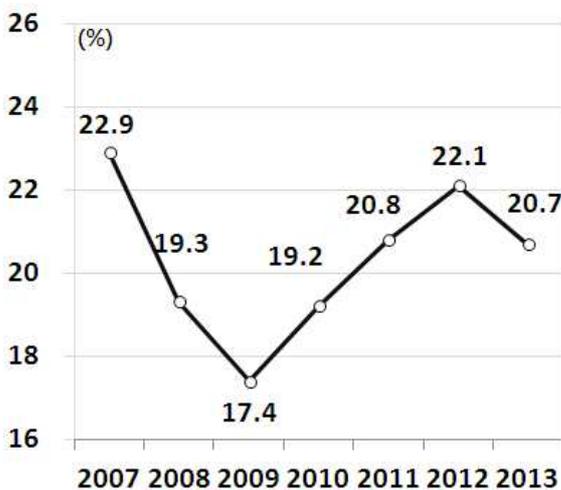
- 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의 귀성 비중은 작년보다 소폭 낮아졌으며 금융위기 이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판단

- 매년 추석연휴 전에 수행된 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대상 자중 귀성할 계획으로 응답한 비중은,
- 2007년 22.9%에서 2009년 17.4%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2012년 22.1%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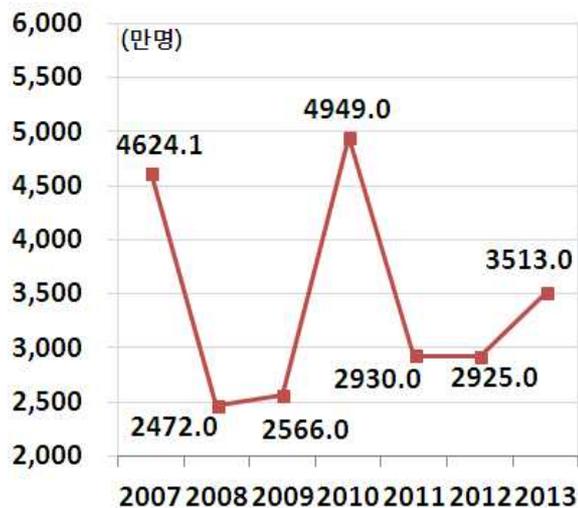
- 한편,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구 이동 규모 자체는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2007년과 2010년의 추석연휴기간의 인구이동규모도 4,000만명대로 다른 연도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함
- 반면, 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한 연도의 경우 인구이동규모는 2,000만명대 수준에 불과하였으며, 올해 추석연휴기간의 이동규모는 2012년보다는 높아진 3,513만명 정도로 추정됨

<추석연휴기간 귀성자비중 추이>



<추석연휴기간의 인구이동규모>



자료: 한국은행, 건설교통부, 국토해양부,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연구원.

○ (교통) 승용차 이용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높아지는 추세이나 금융위기 직전 연도인 2007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

- 승용차 이용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높아지는 추세이나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

-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승용차의 이용 비중은 83.7%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2007년의 84.4%에는 미치지 못함
- 이는 경제 상황의 개선이 승용차 이용률에까지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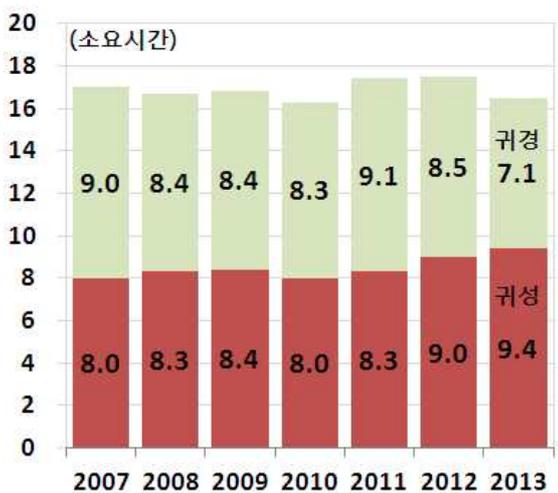
- 2007년 이후 승용차 이용시 귀성길의 소요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귀경·귀성길의 소요 시간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

- 귀성·귀경길의 소요시간은 경기적 요인, 차량 보급률, 도록 확충률, 연휴 기간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세적인 변화를 찾아내기 어려우나,
-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귀성 소요시간은 증가하고 귀경 소요시간은 단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

<추석연휴기간중 승용차 이용비중 추이>



<추석연휴기간중 승용차 이용시 서울~부산간 최대예상소요시간 추이>



자료: 건설교통부, 국토해양부,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연구원.

○ (추석 상여금)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2008년을 저점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, 2011년 이후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여금 지급 비중과 1인당 상여금 규모에서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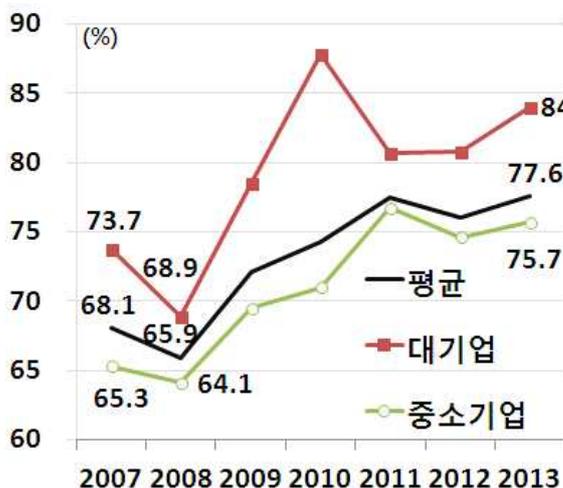
- 연휴기간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2008년을 저점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최근 1인당 상여금 규모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

-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2008년 이후 높아지는 추세이, 올해 지급 비중은 오히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추석보다 높은 수준임
- 다만, 2011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급 비중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기가 부진할수록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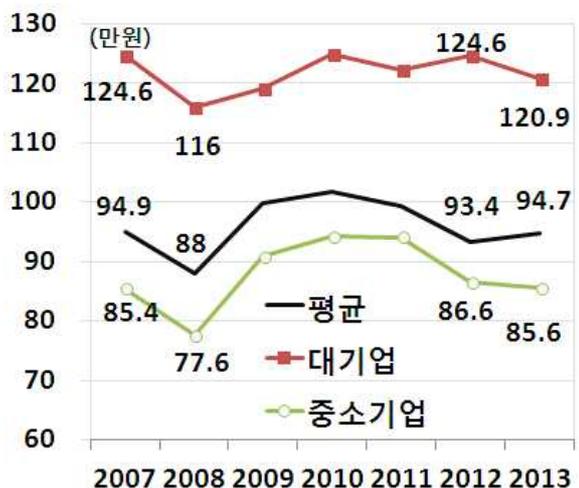
- 내수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2011년을 정점으로 평균 상여금이 하락하는 추세

- 대기업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2010년 이후 12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, 중소기업은 2011년을 정점으로 상여금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
-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추석 상여금 격차가 확대된 모습

<추석상여금지급 기업수 / 총기업수 비중 추이>



<근로자 1인당 평균 추석상여금 추이>



자료: 한국경영자총협회.

주: 1인당 평균 추석 상여금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평균치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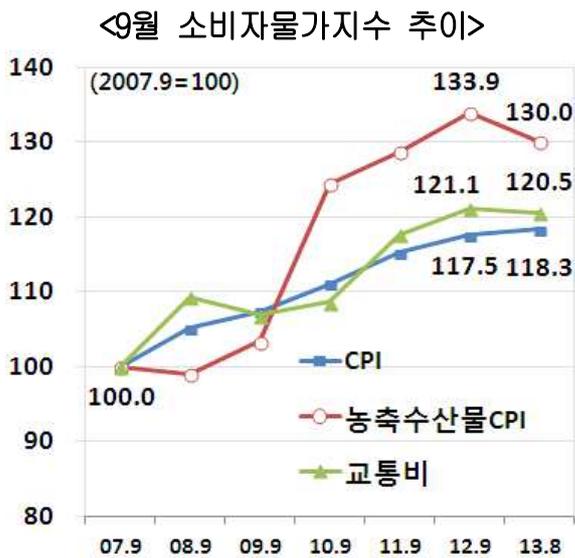
○ (추석물가와 비용)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비교할 때 물가 수준을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기간 약 30%, 교통비 소비자물가지수는 20% 상승

-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비교할 때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기간 약 30%, 교통비 소비자물가지수는 20% 상승

- 9월 농축수산물 CPI(소비자물가지수)는 2007년 9월을 100으로 보았을 때 올해 8월 130까지 상승함
- 9월 교통비 CPI(소비자물가지수)도 2007년 9월을 100으로 보았을 때 올해 8월 120.5까지 상승함

-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례상 비용은 2010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통비용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임

-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하는 차례상 비용은 2013년 25.8만원으로 2009년의 22.9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2010년 이후 횡보하고 있음²⁾
- 교통연구원에서 조사된 교통비용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근에 들어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임



주: 통계청 자료(2010=100)를 연구원이 변환 (2007.9=100)시킨 수치. 따라서 위 값들은 통계청의 공식통계가 아님에 유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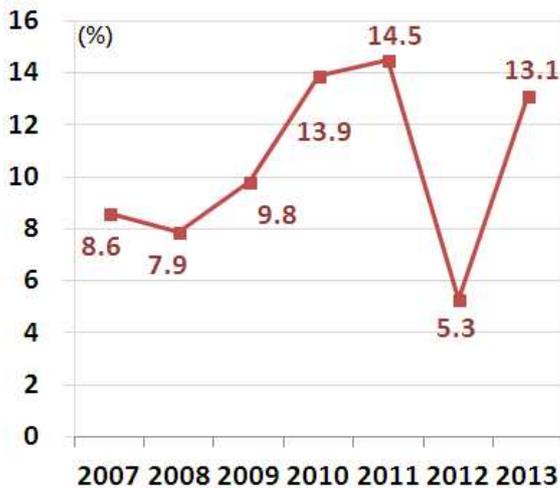
자료: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, 한국교통연구원. 주: 추석차례상비용은 추석 1주전 조사시점의 대형유통업체 기준.

2) 이는 추석 차례상 비용의 경우 원산지나 품질 등의 측면에서 조사 기준의 변화가 있거나 적용이 어려워 다소의 오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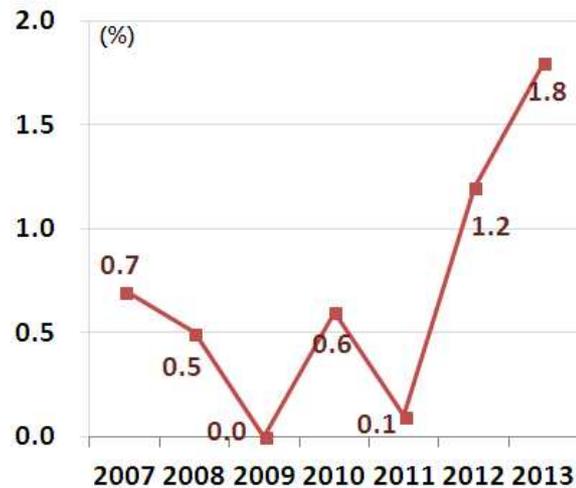
○ (역귀성 및 여행)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추석 연휴기간에서 역귀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외여행비율은 2012년 이후 급증하는 모습

-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서 역귀성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2012년과 2013년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
 - 추석 역귀성 비율은 2007년 8.6%에서 2011년 14.5%로 증가하다가 2012년 5.3%, 2013년에는 13.1%로 다소 둔화 추세를 보임
- 추석 연휴기간의 해외여행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 급격하게 높아지는 추세임
 - 해외여행자수 비율(해외 귀성·여행 응답자수/귀성 또는 여행응답자수)도 2007년에서 2011년까지 1% 미만의 수준을 유지함
 - 그러나 2012년 이후 해외여행자수 비율이 급증세를 보여 2012년 1.2%, 2013년 1.8%를 기록함

<추석연휴기간중 역귀성응답자수/총설문응답자수 비중(07-08 연구원 추정, 09 이후 교통연구원)>



<추석연휴기간중 해외여행자수비율 추이>



자료: 건설교통부, 국토해양부,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연구원. 현대경제연구원.

주: 1) 역귀성자수비율 = 역귀성응답자수 / 총설문응답자수

2) 역귀성자수비율중 2007~08년은 교통연구원 조사를 이용해 자체 추정

3) 해외여행자수비율 = 해외 귀성 또는 여행 응답자수 / 귀성 또는 여행 응답자수. **HRI**

주 원 수석연구위원 (juwon@hri.co.kr, 02-2072-6235)